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일반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그 이상의 학문 연구를 위해, 곧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의 연구를 위해 해외로 나가

김영작(金榮作) 김영작 국민대 명예교수는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59년 서울대학교 당시 문리과대학에 속해 있던 외교학과에 입학하여 1964년에 졸업했다. 1963년에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교환학생으로 도일(渡日), 1965년에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1967년에 석사 학위를, 1972년에 「한말 내셔널리즘의 사상과 현실」을 분석한 학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1975년에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한말 내셔널리즘의 연구』(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989년에는 이 논문집이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2006년에는 증보판이 발간되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인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강의했다.

도쿄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인 1969년 학술조사차 북한 방문을 감행하여, 이로 인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간첩죄'로 복역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사면 복권되어 일본으로 돌아가 도쿄대학 대학원 객원교수로 지내다가 1980년에 귀국, 국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82년에 민주정의당 '이념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2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후인 1985년에 정당인과 국회의원직 모두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 연구자로서 연구 집필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동안 하버드(Harvard)대학, 도쿄(東京)대학, 호세이(法政)대학 등에서 교환교수,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국민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현재 동 대학교 명예교수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어판인 『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東京大学出版会, 1975),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청계연구소, 1989), 『근대한일관계의 명암(明暗)』(백산서당, 2006),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공저, 일조각, 2005),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공저, 한울아카데미, 2006), 『21세기 한일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Ⅰ&Ⅱ』(공편,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국제학술회의 총서, 2007) 등이 있다.

〈그림 1〉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 앞 분수광장에서의 필자(좌)
〈그림 2〉 도쿄대학 법학부의 모임에서 지도교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와 함께(우)

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유럽 국가로의 유학도 있지만, 특히 미국 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나의 경우의 유학은 그런 의미의 통상적 유학이 아니었다. 유학을 간 나라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구미 국가들이 아닌 일본이었고, 유학의 목적도 처음에는 석사나 박사 같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다

내가 1963년 말에 일본에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일 양국의 친선과 문화 교류를 위한 1년간의 일본 파견 프로그램이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한일 정부 사이에 외교 관계, 다시 말해 정상적인 국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장기간 체류를 전제로 한 일본 유학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인 서울대 학생이었던 내가 연세대 학생 2명과 함께 선발되어 국교도 없는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시 연세대의 설립자 집안 출신이자 연세대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던 언더우드(Underwood) 씨의 도량 넓은 사고방식 덕분이었다. 연세대 학생이 아닌 타교생 한 명을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한 것에 대한 일부 연세대 학생들의 반발과 반대 소동 때문에 유학 수속(출국 수속)에 한 달 가까운 지체가 발

생했다. 하지만 언더우드 씨를 비롯한 연세대 교수님들의 넓은 도량의 사고 방식 덕분에, 나는 드디어 연세대에서 선발된 2명과 함께 일본으로의 유학에 동참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정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한정자 씨, 그리고 대학원생이었던 안병준 씨와 더불어였다.

아마도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드문, 어쩌면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된 우리 세 사람은 1963년 12월 17일 부산항에서 한일 간을 오가는 연락선 '칸스이마루'(Kansuimaru)에 몸을 싣고, 부산항을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下関)로 향했다. 땅거미가 드리운 늦은 저녁 무렵,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이미 어두워진 후여서 우리 일행은 시모노세키 역사(驛舍) 건물 중 하나인 허름한 3~4층짜리 1층의 방 하나에 모여 앉아, 빵과 우유 등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날이 밝아 다음 행선지의 안내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우리는 열차를 갈아타고 도쿄로 향했다. 우리를 초청해준 도쿄도(都) 내의 국제기독교대학(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이하 ICU)로 가기 위해서였다. ICU를 찾아 도쿄를 향해 가면서도 나와 함께 유학을 온 여학생 한정자 양은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에 좌불안석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에 도착한 후 우리 일행 중의 한 대학원생이 열차가 히로시마(広島)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잠시 바람을 쐬러 내렸다가, 열차 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리는 바람에 차에 오르지 못하고 짐을 차 안에 둔 채 우리 일행에서 떨어져 낙오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시급히 차장에게 연락하여 손짓발짓으로 그가 차 안에 두고 내린 코트며 짐을 보여 주고 구조를 요청했다. 10여 분 지나 차장이 와 무어라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 일본 차장이어서 확실히는 몰랐으나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였다. 낙오된 사람이 여학생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으로 여겨졌다.

도쿄를 지나 미타카(三鷹)라는 역에 도착하여 보니, 어느 일본인이 우리 두 명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출구에 서 있었다.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 그를 만나 우리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임을 알렸다. 그는 곧 우리를 구내에 세워 두었던 자동차로 안내했다. 미타카라는 역에서 그의 차를 타고 약 30분이나 달렸을까? 영어와 일본어로 'ICU 국제기독교대학'이라는 큰 간판

이 도로 양쪽에 세워져 있었고 길 양쪽에 큰 벚꽃나무들이 200미터가량 늘어서 있었다. 그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대학 본부 건물이 나왔다. 방학이라 그런지 대학 구내가 한산하고 조용했다.

본부 사무실에서는 일본인 여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우리 두 사람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본부 사무실로 가 '도착 신고' 서류를 기입하고 있을 때, 옆에서 히로시마에서 열차를 놓쳤던 대학원생 안병준 씨가 나타났다. 자기는 히로시마에서 기차를 놓친 후 역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선처로 특급열차를 타고 와, 우리보다 한 시간이나 먼저 도쿄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늦게 도착한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묘한 헛웃음을 웃었다. 미타카에 있는 국제기독교대학에서의 일본 유학 첫 날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ICU에서의 일본어 공부와 서울대 졸업

ICU에서의 교환학생 과정은 그 후의 나의 학업 특히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의 학업 이행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일본에서의 유학 첫 해를 ICU에서 영어로 몇 가지 강의를 수강하면서, 나는 ICU가 고안 개발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주일에 12시간씩 일본어를 습득하는 데 주력했다. 그것이 나의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나의 학업 진도 그리고 인생행로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일본어를 습득하면서 나는 ICU에서 1년 과정이 끝날 무렵, 도쿄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석사·박사 과정을 이행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유학 6개월 후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시 귀국하여 서울에 왔을 때, 나는 매 학기마다 이행해야 하는 체육학점 1학점만 더 취득하면 서울대에서의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유학 이전부터 매 학기마다 평균 B학점 이상 우수 성적 취득자에게 허용되는 특전을 활용하여 일반 규정보다 2학점씩 더 많이 수강해온 덕분에, 나는 일본

유학을 떠난 6개월 후인 1964년 1학기를 끝낸 시점에 이미 졸업에 필요한 160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학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1학점씩 이수해야 하는 체육학점은 내가 한국에서 4학년의 1년 동안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 않았기에, 아무리 해도 1학점(필수 체육학점 8학점 중 한 학기분)을 메울 방법이 없었다. 알고 보니 이러한 제도 운영은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나는 일본 유학을 떠나면서 동기생 친구들에게 체육시간마다 '대리 출석'을 의뢰하여 한 학기 분의 학점은 취득했으나, 두 번째 학기 역시 계속 대리 대답으로 출석을 메워 나가다가 연세가 꽤 많으신 문(文) 교수라는 체육과 교수에게 적발되어 학점을 딸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 체육학점 1학점을 더 따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 상황을 전해 들은 나는 부랴부랴 그 해 여름방학에 귀국하여 체육교수님을 찾아 뵙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방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다. 나의 청원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묵묵부답이셨던 교수님은, 다음날 다시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명하셨다. 일단 물러서긴 했지만, 다시 오라는 분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다음날 오후에 찾아 뵈었더니, 용서하고 학점을 주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주시는 것이었다. 곧 일본의 대학에서는 체육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양 선택과정인지 또는 졸업과 연관된 필수과목인지 등등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가 나의 4학년 때의, 한 학기분 체육과목 학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다. 나는 문 교수님의 지시에 뛸 듯이 기뻤다.

일본에서의 체육교육 양상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문 교수님께 큰 소리로 "네!"하고 대답을 하고 물러 나와, 일본에 돌아온 후에는 몇몇 대학의 체육교육과 졸업 조건과의 관련을 탐문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다. 개괄컨대, 일본에서의 체육 과목은 '교양선택'이고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과목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나는 서울대학에서의 졸업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음해 1965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전공 과정에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ICU에서의 수업과 도쿄대 대학원 입학

ICU는 그 명칭과는 달리 신학대학도 아니고 기독교가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인 것도 아닌 일반대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로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대량 살상 무기인 '원자 폭탄'을 투하하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품고, 미국 기독교계에서 자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이라고 했다. 엄청나게 넓은 부지(敷地) 안에 학부 학생수 1500명 정도, 대학원생 100명 정도의 작은 규모에, 전 과목이 일어 또는 영어의 2개국어로 강의되는 특수한 대학이었다. 교수 대부분이 미국인이었다.

ICU에서의 1년간 유학생활은 여러 면에서 유익했다. 무엇보다 서울대에서의 다양한 수강과목을 인정받아 다른 과목을 많이 면제받고, 일주일에 12시간씩이나 듣는 'Intensive Japanese Course'를 통한 일어 강의는 나의 빠른 일어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자(漢字) 하나하나마다 획과 뜻을 외워야 하는 서양인 유학생들과는 달리, 나의 일어 공부는 발음 중심의 학습이어서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었다.

ICU에서는 일본어 학습 이외에도 미국 하버드(Harvard)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다는 아리마 다쯔오(有馬龍夫)라는 교수가 영어로 하는 '일본 정치 사상사' 강의를 들었다. 30대 후반의 젊은 교수였는데 매우 신선하고 자극적인 강의였다. 아리마 교수의 한 학기 강의가 끝날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ICU에서의 1년 과정이 끝나면 도쿄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고, 입시 준비를 위한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는 기가 찼는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말이 없더니,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오카 요시타케(岡義武)의 『국제정치사』(国際政治史, 岩波

書店, 1955)를 적어 주고는, 우선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보라고 권해 주었다.

곧 구입해 여러 번 열심히 읽었다. 도쿄대학 대학원 입시나 특히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서 나는 서울대학에서의 졸업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음해 1965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전공 과정 중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영어'와 '근대 동서양 외교사' 그리고 '일본근대사' 과목의 필기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만 주어지는 면접시험을 치렀다. 한국에서의, 즉 서울대학에서의 전공과 수강과목에 대해 설명을 하는 1차 면접을 거쳐, 일본으로의 유학 동기를 묻는 2차 면접이 있었다. 2차 면접의 질문은 왜 하필 미국이나 서구에 유학하지 않고, 그것도 과거의 식민 통치국이었던, 그리고 아직 국교도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일본에 유학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2차 면접에서의 질의 응답을 거쳐 3차 면접에서는 만약 합격한다면 무엇을 전공할 것이며, 그 동기는 무엇이고,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진땀나는 '면접시험'이었다. 특히 면접 막바지에 거듭 왜 아직 한국과 정식 국교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을 식민 지배한 일본에 유학하려 하며, 석·박사 과정을 끝까지 일본에서 이행하려는지, 그리고 귀국하면 일본 유학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해,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학문 내용 면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된 대답을 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의 수강 과목 특히 카(E. H. Carr)와 모겐소(Hans J. Morgenthau) 등의 저서들을 대충 요약해 대답에 동원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면접시험을 나름대로 치러냈다. 결과적으로 그해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서울대 시절의 전공 공부가 '맹탕'은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1965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전공 과정에 입학한 후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본격적인 '햇병아리' 학자로서의 연구 생활이 시작되었다.

도쿄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한 후, 나는 이후의 학비와 생활비에 관해 고심한 끝에 내가 일본에 올 때에 재정적 후원단체였던 '아시아재단'에 장

학금 지원을 계속 신청해 보았다. 며칠 후 아시아재단 도쿄사무실(The Asia Foundation Tokyo Office)에서 부대표자 바워삭스(Glen Bowersox) 씨의 이름으로 답신이 왔다. 일단 '지원불가'를 알리면서, 그곳 도쿄대표부(사무실)에서는 일본인 학자에 관한 일에는 관여하고 있으나, 한국인 학생에 관한 것은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의 답신이었다. 그러면서 아시아재단 서울사무실에 접촉해 볼 것을 권해주었다. 아울러 친절하게도 대표인 스타인버그(Steinberg) 씨의 이름과 함께 주소도 알려 주었다.

나는 낙담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바워삭스 씨가 서울사무소 대표자를 소개해 준 데 희망을 걸고, 서울의 스타인버그 대표에게 서신과 함께 서류를 보냈다. 얼마 후, 스타인버그 씨로부터 회신이 왔다. 석사과정 2년 동안에 한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날아갈 듯이 기뻤다. 내가 도쿄대 대학원에서 「한·일 내셔널리즘의 상극(相剋):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2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 언급한 분들의 지원 덕택이었다.

도쿄대 대학원 시절의 나날들: 학업과 결혼

도쿄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196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생활이 시작되었는데 ICU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선입관 탓이었을까? 그해에 정치학 전공 석사과정에 합격한 것은, 나와 와세다(早稻田)대학 대학원에서 이미 석사를 마치고 다시 도쿄대 대학원으로 옮겨 응시한 사사키 다케시(佐々木武) 뿐이었다. 그는 석·박사과정 때부터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는데, 뒷날 내가 서울에 돌아왔다가 '북한 방문' 건이 불거져 한국 보안(保安) 당국에 구속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을 때, 이이다 타이조우(飯田泰三) 교수 등과 함께 여러 형태로 구원활동을 해준 고마운 동료 중 한 사람이었다.

도쿄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호세이(法政)대학 교수가 된 이이다 타이조우 교수는 후일 호세이대학에서 3년간 나와 함께 근무했으며, 교

토(京都)대학 교수가 된 오오타케 히데오(大嶽秀夫) 교수 등과 더불어 줄곧 일본에서 학회활동을 함께 했다. 특히 오오타케 교수와 나는 후에 미국의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벨라지오(Bellagio) 소재의 별장에 초청되어 50일간 함께 머물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영어로 공동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록펠러재단이 아시아 학자에게 베푼 '연구휴가'의 결과물이었는데, 이탈리아 체류기간 동안 오오타케 교수가 몸이 불편해 연구 논문은 주로 내가 집필했다.

도쿄대 법학·정치학부 시절의 은사 중에는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저명한 교수가 많았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의 은사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일본정치사상사 전공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교수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일본정치사상사』(日本政治思想史)를 비롯한 수십 권의 저서와 전후(戰後) 일본의 진로에 관한 정치평론집 및 '강의록' 등을 통해 일본의 정신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명강의는 대학원 시절 나의 '병아리 학자'로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루야마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예학자로 '반핵'(反核)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수많은 시론과 평론을 통해 '비무장, 중립, 비핵'으로 집약되는 전후 일본의 진로를 밝혀온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 역시 일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지성이었다. 그는 나의 지도교수로서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도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ICU에 취직해 있던 상태에서 여름방학에 잠시 귀국했다가 한국의 보안 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던 시기에, 나 개인은 물론 나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 주신 고마운 은사님이시다.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14년 10월 2일, 그는 안타깝게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서둘러 도쿄에 가, 일본 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내가 대표로 고별사를 작성하고 낭독했지만 안타까운 심정은 그지 없었다.

도쿄대 대학원 시절에는 그 외에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든 많은 명교수들의 명강의가 있었다. 몇 사람만 더 간단히 언급해 두자. 대대로 학자 집안

출신인 사이토 마코토(斉藤真) 교수(미국 역사와 사상 전공)는 내가 ICU 교수에 취임하고 도쿄대 교양학부에서 국제정치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등 일본 학계에서 일찍 '입신출세'를 하는 과정에서나, 후일 한국에서 '징역살이'로 고생을 할 때 사카모토 선생과 더불어 나의 구원활동에 음·양으로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체구는 작지만 도량이 넓고 인간미 넘치는 품격으로 존경 받으시던 분이었다.

사이토 교수는 어느 해인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한 어조로 "김 군, 혹시 '이종찬'이라는 사람을 아는가?"라고 물으셨다. 머뭇거리는 나에게 그 분과는 일제 강점기 때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조사해보니 해방 후 한국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이종찬(李鍾贊) 씨였다. 사이토 교수는 당시 일본 해군장교였지만 두 분이 절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더욱 이종찬 씨의 품격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다. 사이토 선생의 부탁으로, 다음 해 방학에 서울에 들어와 수소문 끝에 이종찬 씨를 뵙고, 사이토 선생이 뵙고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곧이어 사이토 교수는 자신의 외아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셨고, 나의 안내로 서울에서 두 분의 해후(邂逅)가 이루어졌다. 3일간의 서울 방문 중 하루를 이종찬 씨와의 만남에 할애한 사이토 선생은 이틀 후 기쁜 마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셨다.

1967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나는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석사과정 재학 중 나에게 장학금 지원을 알선해주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아시아재단 도쿄사무실의 바워삭스 씨는, 본국으로 발령이 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간 1년 동안 그의 호의로 도쿄 다카나와(高輪)에 있는 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본인 할머니(house mother)가 해주는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 살면서 석사 학위 논문 집필에만 주력할 수 있었다. 나에겐 참으로 고마운 미국인이었다. 그의 귀국은 정말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었다. 그가 귀국 한 후에도 서로 서신으로 연락을 하다가 나의 징역살이 시작으로 인해 연락이 끊겼다.

바워삭스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해인 1968년 3월, 나는 대학원 입

학 후부터 사귀어 오던 지금의 처 허희경(許僖鏡)과 결혼했다. 그때는 나의 주임 교수이신 도쿄대 정치학부의 사카모토 교수가 미국 시카고대학에 연구년으로 도미 중이어서, 같은 법학부의 정치학 교수이셨던 오카 요시타츠(岡義達) 교수가 축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 요시타츠 교수는 그의 형 오카 요시타케(岡義武) 교수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 와 있던 도쿄 유학생들은 물론 와세다대학, 게이오(慶應義塾)대학, 기타 명문대에 유학 와 있던 많은 유학생과 일본인 동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결혼도 결혼이지만 박사과정 진학 후 여러 가지 변화와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도쿄대학을 위시해서 일본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반안보투쟁'이었다. 때마침 미일 간의 안보 조약이 개정·연기되는 시기여서, 이에 반대하는 일본 전국의 대학생들이 '미일 안보조약 반대' 투쟁에 일어서서, 수많은 대학이 수업은커녕 화염병이 난무하는 소요 사태에 휩싸이고, 드디어 무기한 휴교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도쿄 대학이 그 '투쟁'과 소요 사태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연구실이 전면 폐쇄되고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에 의해 감금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수업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어수선하고 비정상적인 분쟁사태 속에서도, '안보조약' 투쟁에 관해서는, "난 몰라!"라고 하면서 자기 논문 쓰기에만 매달려 일찍 학위를 취득한 '공부벌레'도 없지는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훈소 바카세'[紛争バカセ, 분쟁을 틈타 박사가 된 나쁜 놈(훈소+바카+하카세)]라고 빈정대곤 했다.

도쿄대학 분쟁과 북한 방문

도쿄대학이 분쟁에 휩싸인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의 관심은 남북한 문제, 다시 말해 '통일'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나

의 입북사건과도 연관된, 북한에 관한 나의 관심이 이 무렵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굳이 지적해 두자면, 그것은 6·25 동란 이후의 나의 개인사, 아니 우리 집안 모두의 한 많은 가족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사사로운 사연이지만 우리의 가족사에 관해 간단히 언급해 두자.

거슬러 올라가면 6·25 동란(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확히는 1950년 7월 4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더욱 잊혀지지 않는데, 나의 부친[아마도 이제는 선친(先親)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지만]께서 서울 혜화동 집에서 이미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가셨다.

우리 가족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버님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다. 후일 내가 북한을 방문하여 한 달 넘게 체류하고 있던 시기에도 북한 당국은 납치해 간 나의 부친에 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나도 묻지 않았다. 혹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물어보았자 그들이 신통한 대답을 주기가 곤란한 상태라면, 나의 질문이 나에게 '화근'이 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북한을 방문한 동기가 아버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들이 먼저 입 밖에 내기 전에는 가슴에 묻어 놓고 있기로 작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로 인해 나는 어머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살아왔다. 아버님이 납북되신 후 40여 년간을 홀로 삯바느질 등으로 우리 5남매를 키워오신 어머님이 1997년 11월, 93세를 일기(一期)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나는 이 한 많은 긴 사연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어머님과 아버님의 합장 묘비에 비문으로 새겨 놓았다.

요컨대 나의 부친 김정태(金政泰)는 6·25 동란이 발생할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리직(서울 성동구청장)에 계셨다. 6·25 동란 발발 직후, 서울이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는데, 그에 앞서 이승만 정부가 성급히 한강 다리를 폭파 시켜 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남한 명사들이 난을 피하지 못하고, 북한에 납치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의식·무의식을 불문하고 그 같은 나의 가족사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발생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북한의 상황과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나는 북한 사회를 직접 관찰하고 북한 지도자들의 통일에 관한 생각과 정책을 알아보려는 '천진스러운 생각'도 작용하여, 도쿄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 비밀리에 북한 방문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1969년 3월의 일이었다.

나에게 북한 방문을 제안한 조총련 간부의 정확한 이름을 비롯하여 자세한 신원(身元)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총련 학술 담당자였으며, 그와는 그간 북한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에서 간행된 서적, 예컨대 공식 『노동당사』, 역사학자 김석형(金錫亨)의 『고대 일선 관계의 연구』(古代日鮮關係의 硏究) 등을 입수하기 위해 가끔 조심스럽게 접촉하던 사이였다.

후일 조총련의 부총책으로 활동한 '허 모(某)'라는 자와도 면식이 있었는데, 그가 나의 처남 허성도(許聖道)와 같은 고향 출신의 재일동포였기 때문이었다. 나의 처남은 일본에서 저명한 의사가 되어 일본 수상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의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나는 일본 유학 중, 북한에서 간행되는 서적들 중에 관심이 가는 책들을 조심조심 입수하여 읽고 있었다. 그 중에는 북한의 공식 당사(党史)나 전기·저서 등 일본에서 북한 서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우치야마(內山)서점' 같은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서적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고대 일선 관계의 연구』는 북한학자 김석형이 1963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저로 해서 출판한 책이었다.

나는 김석형의 학회 발표와 출판 소식을 훗날, 아마도 1967년 즈음 서울대 시절의 은사이신 동주(東洲) 이용희(李用熙) 교수님이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전해 듣고, 조총련을 통해 두 권을 어렵사리 구해 한 권은 은사님께 드리고 나머지 한 권을 내가 소장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간행된 책이지만 사상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한국·일본을 막론하고 일본의 고대사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뒤집어 엎고, 반대로 조선이 일본에 식민분국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저서였기 때문이었다.

그 책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내가 북한의 김석형 원사와 그의 저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위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대 시절의 은사이신 이용희 선생님을 통해서였다. 동주 선생님은 내가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한 이래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나를 아껴주신 은사님이었다. 자료 수집이나 책 구입 등 심부름도 많이 시키셨지만, 도쿄대 유학 시절에도 방학을 맞아 서울에 돌아오면 반드시 부부동반으로 불러 식사도 하고 고급 카페에서 풍악을 즐기는가 하면 학문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곤 했다.

어느 해 방학에 서울에 들어와 동주 선생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북한 사회과학원 원장 김석형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디서 입수하신 정보인지 확실히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얼마 전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일본에 갔다가 당신의 연희전문 동창인 재일조선인 명사 이영근(李永根) 선생을 뵙게 되었는데, 그때 이영근 씨가 동주 선생에게 자신의 또 다른 동창인 북한의 김석형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대 일선 관계의 연구』는 김석형 원사의 저서로 1963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그때까지의 고대 시기의 한일(韓日 · 朝日) 관계에 관한 일본의 통설, 곧 일본이 조선(반도)에 문물 · 문화를 전파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조선이 보다 발달된 상위의 문명과 문화를 일본 측에 전파했고, 일본 열도 안에 식민지 분국(分國)을 경영하였다'는 새로운 학설을 발표해 한일 양국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킨 책이었다.

나는 1967년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 들어왔을 때, 동주 선생님으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울러 일본에 가면 북한에서 발행된 김석형 원사의 저서를 구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분부(分付)에 접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원 원장 김석형 씨는 동주 이용희 선생님 그리고 이영근 씨와 연희전문 동기생이란 설명과 함께였다. 일본에 돌아와 간다(神田) 진보쪼(神保町)의 북한서적을 다루는 우찌야마(内山)서점에 두 권을 주문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 면식이 있었던 조총련 학술 담당자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 놓았다. 2주일쯤 지나 '김 선생'이라고만 알고 있던 연세가 제법 지긋한 조총련 간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탁했던 서적 두 권을 오차노미즈(御茶の水)역 근방의 다방에서 받아, 그 중 한 권은 다음 방학 때 동주 선생님께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한 권은 내가 소장하게 되었다.

방북과 수감, 사면과 귀국

조총련 측 인사와의 접촉은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평소 자료수집 등으로 가끔 접촉이 있던 조총련 측 인사로부터 불쑥 "조국(북한)을 한 번 방문해 보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어조(語調)의 제안을 받았다. 나는 묵묵부답으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나의 묵묵부답이 거부가 아니고 내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의 권유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승낙만 해주면 자기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조국(북한)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심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과 북한을 왕래하며 '귀국동포(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이른바 조국방문'을 주선하던 '만경봉 호'를 연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흔히 일본의 신문지상에 보도되곤 하던 밀선(密船)까지도 떠올리며, 위험한 일이지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다시 나에게 조심스럽게 '조국 방문'을 권유하면서, 승낙만 해주면 "가장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표현으로 흔들리는 나를 다그쳤다. 한 달쯤을 망설이던 나는 드디어 더 이상 구체적인 것(방법)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고민을 접고 승낙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일본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조건' 삼아서였다.

그 후 나는 나의 처에게도 이 무모한 방북 작심을 털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2주일 전부터 '한 달 동안 연구와 아르바이트를 겸해 일본 각지를 여

행할 계획이 생겼다'고만 해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처가 의심을 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나의 처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쯤 되었을 때였으므로, 처는 내가 도중에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나의 북한 방문 계획을 본격적으로 의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북한 체류 시의 체험과 그에 대한 감회에 관하여는,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다른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아래에 간략히 북한 방문 시 확인한 북한 체제의 본질적 모순, 특히 '유일 사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만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북한의 정치 체제를 규제해왔고 지금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수령의 유일 사상'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존 시에는 물론 그의 사망 후에도 의인화(擬人化)된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절대자화시켜 독재적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 "수령의 사상, 오직 그것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유일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한의 유일 사상은 '테제'(these)로서의 김일성 사상만 있을 수 있고, 그것만이 정당하며, 어떠한 대안(代案) 곧 '안티테제'(anti-these)도 원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反)변증법적'인 독선이며, 따라서 발전과 변화의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북한 방문 시 북한 인사들과 나눈 대화와 견문은 모두가 '유일 사상'의 논리적 모순과 그 체제의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남한과의 경쟁에서는 물론, 체제의 융통성 있는 변화를 선택하는 데 북한에게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돌아와 나는 학위 논문을 마치고 일본인 은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대학(ICU)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러다 1972년에 한국에 잠시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간첩죄'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다가 5년 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일본의 동학, 동료들, 은사들의 탄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위에 말한 것처럼 나의 큰 처남이

당시 일본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주치의였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후쿠다 총리가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가 있던 중, 전두환 대통령 때 사면 복권되어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1980년에 귀국한 후 나는 5년 가까이 정치인, 정당인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를 겸해서 수행해 나갔다. 귀국 직후인 1981년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대화 끝에 그때나 지금이나 공식 직제에는 없는 '어떤 자리'를 언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통령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기뻤으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을 달아 이를 완곡히 거부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간 과거의 나의 경력을 문제 삼아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 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개를 한두 번 끄떡거리시더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다. 사람이란 묘한 동물이어서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안심도 되는 묘한 기분으로 그날은 다른 말씀만 한참을 더 듣다가 물러나 나왔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며 당시의 집권정당인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으로부터 당의 이념을 만드는 일에 관여해 당의 진로 설정과 당원 교육의 근간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지시가 '윗 분'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당시 나를 부른 민정당 대표위원과 사무총장은 간접적으로 강조하셨다. 나는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나는 '이념실'을 맡아 당의 5대 이념, 즉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을 3개의 실무 파트에 연계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1980~1987)의 한일 관계

이와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나는 집권 여당 민정당의 이념실장(理念室長) 직에 있으면서 참모로서 대통령의 이른바 '적극적 외교'

전개의 방향 설정과 실무 추진 양 방면에 걸쳐 대통령을 보필했다. 아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의 대일외교에 관한 평가와 감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출범 직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초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듯 했으나, 여기에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복안이 작용하고 있었다.

취임 초인 1982년경,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로 시작된 '교과서 분쟁'이 한국 정부와 국민의 큰 반발을 사고 있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문제가 양국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경제 협력'의 명분과 금액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국 간 긴장 관계가 날로 고조되는 듯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담하게도, '10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통 큰 제안'으로 일본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후일 알려진 바로는 이 같은 '통 큰 제안'은 한국을 방문했던 레이건(Ronald W. Reagan)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양해 아닌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참모들에게는 알려지고 있었다. 이 요구 액수의 크기에 참모의 한 사람이었던 나 자신도 크게 놀라는 한편 그 실현을 의심하기도 했었다.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통 큰 정치인들'의 적절한 만남으로 기록될 만하다. 결국 두 사람은 한일 간에 '40억 달러의 경협 차관'에 합의했던 것이다. 참모로서 이 협상을 보면서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보스' 기질의 '외교 역량'에 내심 감탄했다.

1984년 9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 이루어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일본 천황은 만찬사에서 과거사에 관한 반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일본 고어풍의 한자 표현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나름대로의 과거사에 관한 '사죄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후 양국 관계는 악화와 호전을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의 외교, 특히 대일 외교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반 확충을 기조로 하여,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일본과는 경제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상외교'를 통해 48개국 59명의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했으며, 임기 중 17개국을 순방하는 등 이른바 '다원 외교'를 적극 추진했다. 동시에 '자유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제 경제질서 구축'에도 주력했다. 이른바 '남남협력'(南南協力), '태평양 연안 국가 간 협력'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즐겨 표방하던 슬로건이었고, 이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이 같은 '적극 외교'에 집권당의 '이념실장'으로 대통령의 외교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현실적 외교 목표 달성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국적으로 보아 전두환 대통령의 외교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상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이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의 부정 축재에 관한 보도는,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인간 전두환 씨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궤적에도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상호 '호연지기'를 피력하던 나카소네 일본 전 수상과 더불어 한일 양국 국민으로부터 '통 큰 정치인'으로 평가 받던 전직(前職) 대통령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불명예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념실장'으로 봉직한 일개 참모였던 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해탄 선상의 '바카야로' 사건에 관하여

1984년 7월 17~18일(2일간),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부관(釜関) 연락선 선상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인들이 참가하여 토론회가 열렸다. 일본 측에서

는 오오시마 나기사(大島渚, 영화감독), 나까가미 겐지(中上健次, 소설가), 오까모토 따로(岡本太郎, 현대예술의 대가), 츠쿠시 테츠야(筑紫哲也, 저널리스트) 등 6명이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영작(필자, 국민대 교수), 최인호(작가), 이우환(작가), 최상용(고려대 교수), 조용필(가수) 등 8명이 참가했다.

토론회의 기획자는 전옥숙 여사였다. 주최는 일본 측에서는 아사히TV와 한국 측에서는 KBS가 제작하여 양국(兩國)에서 방송되었다. 주제는 일본과 한반도를 잇는 '현해탄(玄海灘)에 새로운 길을 열다'였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악천후였다. 배가 제대로 떠날 수 있을지 출발 당초부터 걱정이 많았다. 바다 위의 선상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일본 측 참석자인 오오시마 씨는 술이 과했다. 두 시간이나 더 지나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일본 측 사회자는 여성 언론인이었고, 한국 측 사회자는 내가 맡았다.

먼저 한국 측 사회자였던 내가 회의 진행을 위한 좌석 안배와 회의 진행 요령 등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했다. 그러자 오오시마 씨가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갑자기 "사회자는 필요 없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회자로서 진행 발언을 계속하려 하자, 오오시마 씨가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바카야로"라고 욕을 해댔다. 갑작스런 '바카야로'라는 소리에 놀란 나도 화가 나 "난다, 바카야로"(뭐야? 이 자식아!)라고 응수해주었다. 오오시마 씨의 술주정이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오오시마 씨는 회의 진행과 관계 없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한 발언을 계속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사회자석에서 일어났다.

30~40분쯤 지났을까? 회의 기획자이기도 했던 전옥숙 여사가 나에게 다가와 "김 박사, 참아. 참아!"라고 애타게 말하기에 그녀의 입장을 생각해 마지못해 다시 사회자석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나뿐만 아니라 한국 측 참석자들은 언짢은 분위기를 억지로 참고 있었다.

'현해탄 선상의 바카야로 사건'으로 알려진 이 우발적 사건은, 양국 주

최자들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오오시마 씨가 귀국한 뒤 일본 언론이 그를 계속 추적해 면담을 요구하려 하자, 그는 그 일본 언론인들을 향해 또 "바카야로!"라고 욕을 해 악명이 높아졌다. 일본 언론에 '바카야로! 사건'으로 다시 더 크게 보도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양국 주최자들의 수습 노력으로 억지로 봉합되는 듯했던 회의의 불미스러운 점이 오오시마 씨의 계속되는 돌출 행동으로 더 크게 확산되어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몹시 뒷맛이 좋지 않은 회담으로 끝나버린 이 '토론회'는 그 후 한동안 한일 양국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후일 확인해 보니 일본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현해탄 위의 바카야로 사건'으로 보도되고, 『아사히신문』(朝日新報)의 고정 칼럼인 「천성인어」(天声人語)란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다시 대학 강단에 서서

1985년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과 연관된 당내의 '파벌'(계파) 간 세력 다툼,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 경쟁과 관련되어 은연 중에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모(某)씨 측에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미 해결이 모두 끝난 수 십년 전의 나의 행적, 곧 북한 밀행을 구실 삼아 직간접적 모함이 발생했다. 나는 이것이 정당인 생활과 정치생활을 정리 청산하는 좋은 기회라 작심하고 집권정당의 '이념실장'직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자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대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나는 그때까지 더불어 고생을 해온 많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과 작별하고 1년 계획의 세계여행에 나섰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당원 동지들이 모아준 성금은 나의 세계여행의 자금이 되었다. 견문을 넓혀주고 지친 정치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주

는 좋은 여행이었다. 귀국 후 바로 국민대에 복직했다. 1989년의 일이었다.

그 후 5년간 연구와 강의 등 교직 활동에만 종사하다가, 1994년 3월부터 1995년 2월 말까지 안식년을 활용해 미국 하버드대학에 연구교수로 나갔다. 하버드대학에서의 연구 생활은 매우 신선하고 자극적이었다. 정치학부의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교수의 배려로 연구실을 얻어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하버드대학 도서관과 미 의회도서관의 미공개 비밀 외교문서 자료를 뒤지다가, 그때까지 어디에도 공개된 바가 없는 일본의 비밀 외교문서(MT Series, Meiji Taisho 시기 비밀문서들)를 발굴하여 미칠 듯이 기뻤다.

이 자료를 모두 미국 의회도서관에 의뢰해서 복사하여 이를 활용해 우선 몇 편의 논문을 써서 하버드대학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귀국 시 한국에 가지고 돌아와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모두가 한 번도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이 숨겨졌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획기적 논문들이었다. 김옥균 암살의 전모를 새로이 밝힌 논문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 글은 나의 저작집 중 하나인 『근대 한·일관계의 명암』(백산서당, 2006. 제2쇄는 2009. 1)에 수록되어 있다.

나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년간 국민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도쿄대학 교양학부 국제관계론과의 초청으로 도일(渡日)하여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한일 관계 및 한중일 3국 관계'에 관해 강의했다. 나의 학술 논문집 중 하나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김영작·이원덕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6)에 실린 논문과 나의 저서인 『한말 '내셔널리즘': 사상과 현실』(백산서당, 2006) 등이 주된 교재였다. 또한 또 한 권의 나의 주저라 할 수 있는 『근대 한일관계의 명암』에 실린 많은 논문을 교재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까지의 한일 관계와 한청일(韓淸日) 관계에 관한 강의를 했다.

특히 이 책에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한국관」이란 논문에서 '후쿠자와의 조선에 대한 망국(亡國)을 독촉하는 언설'을 밝힘과 동시에, 제5부의 '근대 초 한중일 관계의 파국'(제9장)에서 「누가 왜 김옥균을 죽였는가? 흑막에 가려져온 김옥균 암살의 진상」이란 논문을 통해, 홍종우의 김옥균 암살을 배후에서 조종한 일본인 오미와 조베에(大三輪長兵衛)란

인물의 암약상을 새로이 밝혀냄으로써, 그간 한청일 3국에서 잘못 알려진 종래의 학설을 뒤집는 획기적 사실을 구명했다.

위의 책『근대 한일관계의 명암』에는 그 외에도 근대기 한청일 3국 관계에 관한 종래의 잘못되거나 왜곡된 주장(학설)을 뒤집는 여러 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어 세계 각국에서 공히 새로운 학설로 주목 받았다. 관심 있는 후학들께, 감히 일독(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2015년에 서서 2005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회고하며

> "(전략) 역사는 도도히 흘러,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한국은 식민지 체험 세대가 사라져갑니다. 일본의 전후 세대와 한국의 한글세대가 양국 관계 현장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도쿄(東京)와 서울에서 '우정(友情)의 해'를 선포한 2005년, 공교롭게도 양국은 다시 한 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2005년 초에 양국 지도층이 다짐했던 '나가자 미래로! 다 같이 세계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중략)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앞당길 일차적 관건은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 달려 있습니다(후략, 방점은 인용자)."

이 글은 필자가 한국의 현대일본학회 회장직에 있던 2005년,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40년과 동북아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전 국무총리이자 포스코 명예회장이셨던 박태준(朴泰俊) 씨가 펼친 기조강연 중의 일부 문장이다.

나는 위 문장에 담긴 박태준 씨의 기조강연 내용은, 당시는 물론 지금에도 아니 지금이야말로, 박태준 씨의 강연이 설득력 있는 웅변으로 들려왔던 당시(2005)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래서 외람되나마 지금의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 특히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이 국제회의의 또 다른 기조강연자이기도 했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일본 총리의 기조강연 '21세기 한일 공동의 비전'도 훌륭했지만, 박태준 씨의 기조강연이야말로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보다 나은 양국 공생의 우호협력 관계'의 창출을 위한 과제, 특히 일본 측의 과제를 설득력 있게 피력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그 중 서두의 한 문장을 짧게 인용해 놓았지만, 이 강연은 학자·정치인·일반인을 막론하고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은 명강연이었다.

아울러 근대 이후의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자는 외람되나마,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에 수록된 여러 논문, 특히 나의 「일본(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호(嗚呼)라! 불행하게도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의 한일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서' '전후 최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런가?'라고 묻는다면 결국 아베 정권에 들어와, 일본이 첫째는 국내 여론 통합을 위해, 둘째는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관계를 활용 또는 악용해 한국 특히 중국에 강경 노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현재 양상에 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2012. 9. 3), 내가 『조선일보』의 선임기자 최보식 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현재의 입장에서 반추하며 요약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할까 한다.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지금의 상황이 2년 전과 별다름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2012년 가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 은사인 사카모토 요시카즈 선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었다. 즉 "양쪽이 다 어른스럽지 못했다"(両方とも大人らしくなかっ

た)는 것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나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 측 책임론을 제기하여, 외교 관계에서 우리 입지를 좁힐 뿐"이며, "우리가 먼저 일본을 자극했다고만 볼 수 없고, 이왕 터져나올 것이었다면, 차기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에서 촉발한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그 뒤를 이어 나온 "일왕이 방문하려면 사과부터 하라"는 발언은 불필요했다고 보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한편 나는 그때에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비양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는 매스컴과, 일반 일본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혼동하면 일본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정도로 강조하고 싶다.

어쨌건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미해결인 중요 현안을 남겨놓은 채 '더 대국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묵언의 동의를 하고는, 이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적당히 봉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사를 논하지 말자는 것으로 처리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들 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일 관계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회담 당시와 상황은 비슷한데, 양국 간의 현실과 장래 이익을 위해 당시보다 더 큰 발상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데, 비학자적 표현을 굳이 쓰자면, 지금은 일본 정부의 '옹졸함'에 실망이 크다.

2012년의 위기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현재, 한일 갈등은 여전히 양국 지도자의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른답지 못한 비중'은 일본 쪽에 훨씬 더 많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현 아베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다. 그

렇다면 한국의 대일 외교는 일반 일본인을 일본 지도층의 문제적 역사인식에서 분리하여 적극적인 공공 외교의 대상으로 삼아 일본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본비평』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나,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시기와 성격을 고려하여 필자가 사용한 당시의 일본어 발음대로 표기했다.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2, 2015
CONTENTS

4 **Editor's Note** NAM Ki Jeong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26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CHUN Ja Hyun

50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NISHINO Junya

72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YOO Hyuck Soo

102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CHO Youn Soo

134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PARK Young June

168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YOON Dae Yeob

196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PARK Cheol Hee

224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NAM Ki Jeong

264 Retrospect of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after the 1945 Liberation KIM Young Jak

290 Understanding Japanese Local Politics through Gender Analysis SHIN Ki Young

RESEARCH NOTE

308 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SHINDO Muneyuki

ARTICLES

328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CHOI Yun Young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 상반기, 제1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철희 | **편집위원장** 박규태 | **편집간사** 이은경
편집위원 강태웅, 권숙인, 김봉진, 김효진, 남기정, 목수현, 박진우, 신기영, 양일모, 원지연, 유혁수, 윤상인, 이은경, 이지원, 이지형, 임성모, 장인성, 정진성, 조관자, 최영호, 황성빈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 880–8503 | **팩스** 02) 874–3689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화** 02) 880–5220
ISSN 2092–6863

Copyright ⓒ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실린 글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ijs.snu.ac.kr) 및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일본비평』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NRF-2008-362-B00006).

일본비평
2015 상반기, 제12호

차례

4 **편집자의 말**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26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천자현**
50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니시노 준야**
72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유혁수**
102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조윤수**
134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박영준**
168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196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박철희**
224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남기정**
264 **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290 **특별서평**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신기영**

연구노트

308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신도 무네유키**

연구논단

328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최윤영**

356 참고문헌
366 국문초록
371 영문초록